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뚜렷…과일·과채류, 육류 소비 많아

- 소비자 10명 중 8명 식품 구매에 사용, 코로나19 때보다 늘어
- 복숭아, 한우 소비 두드러져…농식품 소비 진작에 긍정적 영향

2025년 민생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식품 소비 진작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먹거리 소비’에 더 많이 사용된 특징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계획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5%가 먹거리 구매에 소비쿠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약 60.0%)보다 20.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먹거리 중에서는 과일·과채류(70.7%)와 육류(66.4%) 소비를 늘린다는 답변이 많았다. 과일·과채류 소비를 늘릴 예정인 소비자 중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겠다고 꼽은 과일은 복숭아(38.1%)였다. 이어 수박(22.1%), 사과(18.3%), 포도(13.0%) 소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육류 소비를 늘리겠다고 답한 소비자 중에서는 한우(40.2%)를 가장 큰 소비 증가 품목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돼지고기(34.3%), 수입 쇠고기

(11.6%)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한우, 60대 이상은 돼지고기를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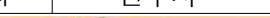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곡물류는 쌀(42.0%), 콩류(31.2%), 옥수수(12.6%) 순으로 소비가 늘 것으로 조사됐다. 채소류는 오이(21.0%), 상추(14.0%), 배추(1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에 대해 응답자의 51.4%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긍정적’이라고 피력했다. ‘불편하지만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응답은 30.4%, ‘상관없다’라는 의견은 4.1%에 달해 소비쿠폰에 대한 정책 수용도가 85.9%로 높았다.

반면, 사용처 제한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14.1%에 불과했다. 60대 이상(33.3%) 연령대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꼈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불편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혁신과 위태석 과장은 “소비쿠폰 사용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살아난 것 같다.”라며 “소비 회복과 농가 소득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농식품 홍보, 판촉 지원 등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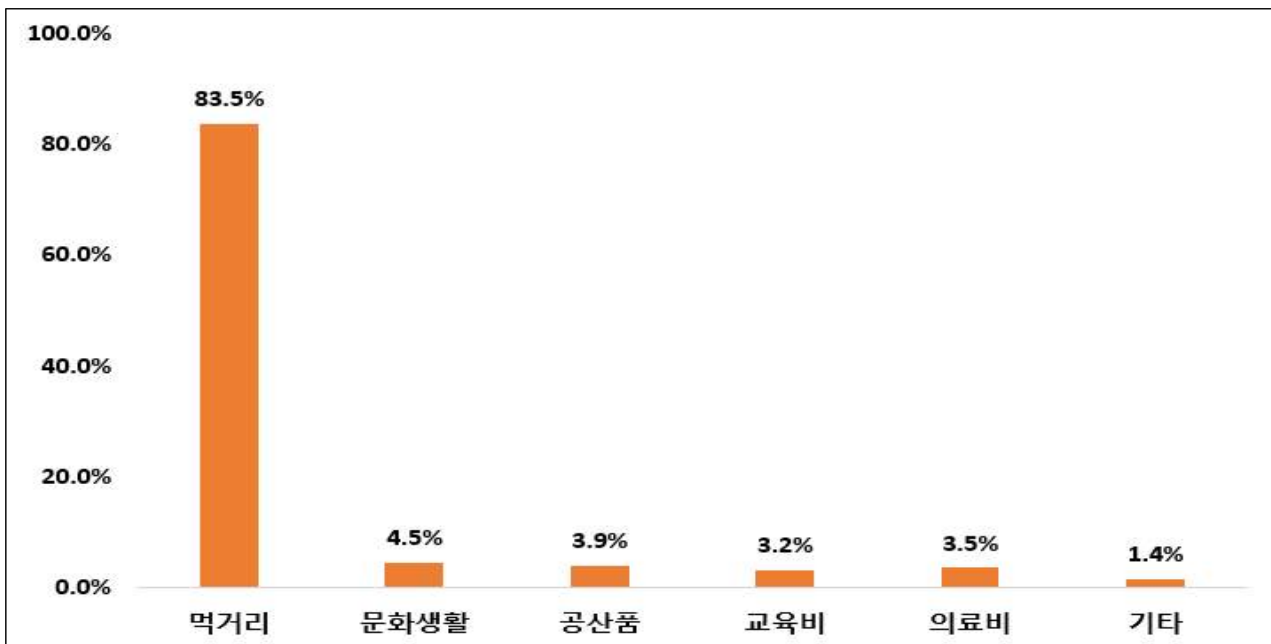
붙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시 소비 계획 분석 결과

담당 부서	기술협력국	책임자	과 장	위태석 (063-238-1190)
	농업경영혁신과	담당자	연구사	이유진 (063-238-1218)
	<div><div>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div><div>농업의 모든 것</div><div>농사로</div></div> 			

◇ **주로 먹거리(83.5%) 소비에 집중, 사용처 제한에도 긍정적 평가**

- (사용용도) 먹거리(83.5%) > 문화생활(4.5%) > 공산품(3.9%) 순
 - 모든 연령대가 먹거리 소비를 최우선으로 계획, 연령 구분 없이 식품 소비 집중 양상
 - 먹거리 다음으로 30대 이하는 문화생활(6.3%), 40대는 교육비(9.5%), 50대·60대 이상은 공산품(5.0%·5.5%) 소비를 늘릴 계획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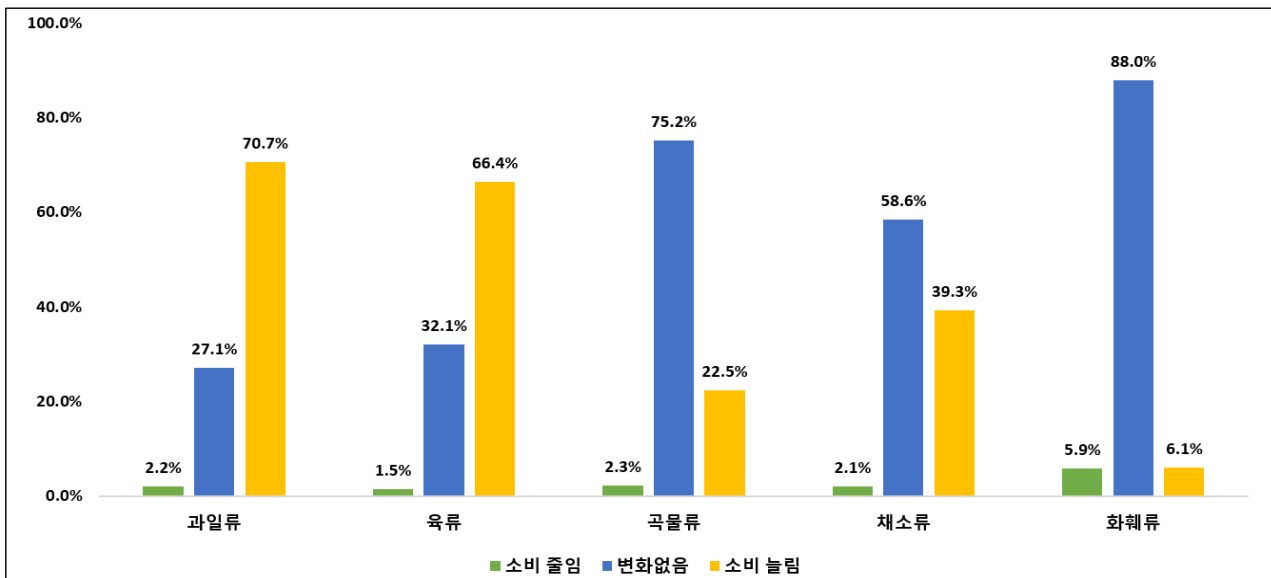
- (사용처1) 사용처 제한에 대해 불편하다는 응답은 14.1%에 불과
 - 소비자의 절반 이상(51.4%)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긍정적’이라고 응답, 30.4%는 ‘불편하지만 취지에는 공감함’, 4.1%는 ‘상관없음’으로 응답하여 정책 수용성이 높은 수준으로 판단
 - 사용처 제한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연령대는 60대 이상(33.3%) > 50대(31.9) > 40대(19.1) > 30대 이하(15.6) 순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쿠폰을 지급 받은 지역 내(주소지 시·군 지역 내 등)에서 사용 가능

◇ 소비 쿠폰으로 과일류, 육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농식품 소비변화) 과일류는 70.7%가 소비를 늘린다고 응답했고, 육류는 66.4%가 소비를 늘린다고 응답
- 화훼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변화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농식품 소비변화>



- (과일류) 복숭아(38.1%), 수박(22.1), 사과(18.3) 순으로 소비 늘어날 전망
 - 모든 연령대에서 복숭아 소비를 늘린다고 응답했으며, 30대 이하는 사과, 40대 이상은 수박 소비도 늘릴 것으로 전망
- (육류) 한우(40.2%), 돼지고기(34.3), 수입 쇠고기(11.6) 소비 늘어날 전망
 - 50대 이하는 한우, 60대 이상은 돼지고기 소비를 늘릴 것으로 전망
- (곡물류) 쌀(42.0%), 콩류(31.2), 옥수수(12.6) 소비 늘어날 전망
 - 40대 이하는 쌀, 50대 이상은 콩류 소비를 늘릴 것으로 전망
- (채소류) 오이(21.0%), 상추(14.0), 배추(11.9) 소비 늘어날 전망
 - 모든 연령대에서 오이 소비를 늘린다고 했으며, 다음으로 40대 이하는 상추, 50대는 배추, 60대 이상은 당근 소비도 늘릴 것으로 전망
- (화훼류) 절화(36.3%), 관엽식물(32.5), 분화(26.6) 소비 늘어날 전망
 - 30대 이하는 분화, 40대는 절화, 50대는 관엽식물 소비를 늘릴 전망